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 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 그러나 온유한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은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믿음을 다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는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5절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악

속하십니다.

오늘 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가 이루시리라'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2019년에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둘째, 여호와 앞에 불평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이 주는 분과 악을 끊어버리고 하늘이 주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셋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돌봄 받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자연스럽게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설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안에서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어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2.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때 햇빛되게 하소서
3. 한번가면 안오는 빠른 광음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사랑의 나눔

다 같 이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68-6 TEL/(033)252-5959 FAX/(033)241-1999 [chdongbu.or.kr](http://chdongbu.or.kr)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7시30분 / 2부예배: 오전9시 / 3부예배: 오전11시 / 4부예배: 오후1시

# 설날가정예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